

금값 '고공행진' 弱 달러 영향... 중장기적 추가상승 전망

美 올 3차례 금리인하 전망 확산
오는 6월이나 7월 인하 시작 전망
“대선 임박할 수록 안전자산 선호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듯”

이달 들어 100달러 넘게 상승한 국제 금 가격이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지난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라 연준(Fed)이 올해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조정구간을 거쳐 중장기적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온스당 216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24.70달러(1.1%) 하락했지만 지난 4일 이후 3주 연속으로 2100달러 선을 웃돌았다. 금 가격이 2100달러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1월 이후 40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온스당 2054.70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골드바가 전시돼 있다.

/뉴시스

온스 당 2188.60달러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고, 지난 20일에도 장중 한때 온스당 2220달러를 넘겨 장중 최고가를 새로 쓰는 등 강세다.

이번 금 가격의 강세는 미 연준(Fed)의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따른 달러 약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달아 발표된 미국 경제의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 FOMC

점도표가 올해 3차례의 금리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기존의 전망을 유지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금 수요가 늘고 있는 것.

시장에서는 오는 6월이나 7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6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75.1%에 달한다. FOMC 직전인 19일 전망치인 59%에서 크게 올랐다. 7월 내 금리인하 전망은 87.4%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금 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조지 밀링 스탠리 SSGA 수석 금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설정 기준인 개인 소비 지출(CPI)이 목표치보다 여전히 높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완화를 원하지 않는다”며 “2025년 금리인하 전망을 4회에서 3회로 줄였고, 이에 금이 (점진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망했다.

오한비 신한투자증권 글로벌 전략가는 “더욱 강력한 대외정책을 예고하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대선이 임박할수록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투자 매력도가 부각될 수 있고, 이는 금 가격에 우호적으로 작용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낙관적인 금리 인하 전망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단 해리스 BoA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앞선 1월과 2월의 소비 물가 인플레이션은 (금리인하에) ‘두 달의 나쁜 달’로 해석할 만 했고, 그들이 (금리인하의)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될 때까지 세 가지의 우호적 보고서가 나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 순간은 6월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That may not be in time for June)”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3월 점도표에서 세 차례의 금리인하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세 차례 이상의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전망한 위원의 수는 지난 12월보다 오히려 줄었다”며 “올해 연준이 금리인하를 세 차례보다 적게 진행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1면 'AI시대 총성 없는 전쟁'서 계속

수출 7000억 달러 목표... 올 무역보험에 255조 투입

산업부,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車·이차전지 33조, IT에 50조 등
RG 부보율 85% → 90% 이상 상향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산업별 세부 지원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대한상의에서 '제4차 민간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무역보험 지원확대 계획 등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255조원의 무역보험을 공급하고 지원대상과 방식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업황회복으로 수출현장에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이차전지(33조원), 기계·선박(13조원), 유화·철강(40조원), IT(50조원) 등 주력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민간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출업종에 총 136조원을 공급한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방산(7조원), 플랜트·에너지(15조원), 원전(4조원) 등 분야에 총 26조원을 지원한다. 최근 한류 확대에 따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5조원), 화장품(1조원) 등

유망소비재 분야에는 18조원을 공급한다. 서비스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를 제작하는 글로벌 OTT 기업을 대상으로는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고금리 장기화로 기초체력이 약화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를 위해 역대 최대인 총 90조원을 투입한다.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보험을 전년 2만8000개사에서 올해 3만5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신용보증 한도는 2배 늘리고, 단기수출 보험료 50% 할인은 지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중은행-무보간 협력을 통해 신설되는 2조2000억원 규모 수출 패키지 우대금융의 보험·보증료 면제, 중소·중형 조선사에 대한 RG 특례보증 지원 확대(2천억원 → 4천억원),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참여 확대를 위한 RG 부보율 상향(85% → 90% 이상)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수출 유발효과가 큰 현지에 진출한 해외 법인에 대해서도 1조원 규모 무역보험을 신규 제공하고, 대기업을 통해 간접수출을 시행중인 1~3차 협력사 대상 2000억원 규모 제작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 강남역 역사에 삼성 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디지털 옥외광고가 게재된 모습.

/삼성전자

삼성 '비스포크 AI 콤보' 3일만에 1000만대 판매

가전은 물론 AS(애프터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해 고객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비스포크 AI 콤보'는 3일 만에 판매 대수 1000만대를 돌파했다. 매일 300대씩 팔린 셈이다. LG전자보다 보급형 제품을 먼저 출시한 덕분이다.

에어컨 시장도 경쟁이 치열하다. LG전자는 최근 스마트케어 기능을 탑재한 'LG 휘센 뷰 에어컨'을 시장에 내놨다. AI 스마트케어는 고객이 따로 바람의 세기나 방향을 조절하지 않아도 LG 씽큐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설정한 배치를 기반으로 AI가 공간을 분석해 최적의 쾌적함을 선사하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AI 기능을 강화한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갤러리'와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벽걸이'로 맞불을 놓았다.

증권가도 반도체 및 전자업종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우려가 기대로 전환되며 밸류업 구간에 진입할 전망”이라며 “올해 1분기 반도체 영업이익의 흑자전환과 HBM3E 신규 공급, 대형 M&A(연구개발)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금감원 '상장폐지 회피' 좀비기업 연중 집중조사

3개부서 합동 대응체계 구축·운영
3년간 폐지 44곳 중 37곳 불법 발생
조치완료 사건 부당이익 1694억 집계

25일 금융감독원은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의 부정행위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하는 부실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좀비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법 행위는 좀비기업 퇴출을 지연함으로써 주식시장

내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선순환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곳이다. 이 중 42곳은 코스닥 상장사다. 특히 지난해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전 2년간 주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년 동안 상장폐지된 44곳 중 37개사에서 불공정거래

가 발생했다”며 “이 중 15곳은 조사를 완료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권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나머지 22개사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증권위 조치가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익 규모는 총 1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혐의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 7건이다.

금감원은 좀비기업의 회계분식 사례도 제시했다.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던 D사는 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상폐 요건을 탈피했다. D사 최대주주는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편취했으며 D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대의 자

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서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행위를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감리를 실시하겠다”면서 “상장 당시 추정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와 크게 차이는 경우엔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 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도 구축해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회계분식 관련 사건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회계감리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